안녕하십니까.

NEAR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임 병 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번 NEAR 홍보대사로서 여러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사무총장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저는 사무총장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NEAR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과 전임 총장님들이 함께 추진했던 많은 일들과 성과를 살펴보면서, NEAR의 중요성과 함께 여러분 개개인이 모두 뛰어난 역량을 지니고 계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옥채 전 총장님의 NEAR에 대한 사랑과 뜨거운 열정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34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외교와 국제관계, 지역 협력 업무를 처리해 왔지만, 주로 중앙정부에서 국가간 협력문제를 처리해 왔기 때문에 지방 정부간 협력을 다루는 NEAR 관련 구체 업무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 배워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NEAR는 국가간 연합기구나 연맹조직이 없는 동북아지역에서 지역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지향하는 지방정부간 다자 교류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매우 소중한 조직입니다

1996년 창설이후 지난 27년간 외형적으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총회 고위급 참석 저조, 일부 회원단체의 참여 의지 약

화, 인지도 부족, 다자 교류 플랫폼으로서 대표적 행사 부족, 사무국 운영을 위한 회비 문제 등 다양한 난제가 쌓여 있습니다.

2026년은 NEAR 창설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창립 30주년을 3년 앞둔 해입니다.

저는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창립 30주년에는 우리 NEAR를 명실상부한 동북아 다자교류 협력의 중심이자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인지도 높은 국제기구로 만들어 나갈 포부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포부와 꿈은 국제정세 변화와 회원단체의 협조와 함께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도움과 노력없이 결코 실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꿈이자 여러분의 꿈이기도 한 이 목표를 향해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자 합니다.

이 과정은 힘들기도하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개인적인 애로사항 등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저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NEAR는 저로 인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모습이 되기를 기원하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